



KERI Insight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 니트의 변화 추이를 개인 및 가구 특성별로 분석하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 니트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 21.2%를 기록하였다. 니트의 비중은 그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 니트의 비중에서는 최근 들어 남성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니트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청년층 니트의 비중은 최근에 30%를 넘어 서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모의 학력별 니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형태에 따른 니트의 비중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최근 들어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취업 경험 유무별 니트 비중에서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 니트 비중은 최근 들어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하여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4만 원을 기록하여 취업자 대비 니트의 소득비율은 85.0%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는 34.7조를 기록하였는데 2017년에는 49.4조 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7년에

2.7%를 기록하였다.

향후 니트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재편하고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서비스 중심의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득이한 현금 위주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니트에 대한 지원은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지급의 경우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

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과잉 대학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고립,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의욕 상실 등에 기인하는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연도별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9.0%대를 기록하면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음
 - 2018년 청년실업률은 9.5%를 기록하였는데 2000년대에 청년실업률이 7.0~8.0%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청년 실업률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늦추고 청년과 중장년의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소모적 낭비를 유발
 -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자체도 통계의 적절성 등이 지적되면서 실제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청년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청년 고용률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 2000년대 초반 45%대를 기록했던 청년고용률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

만 2018년에는 42.7%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큰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노민선(2018)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1%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60.6%, 일본 56.8%, OECD 평균 53.3%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청년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업률보다도 고용률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음
 - 실업률이 구직할 사람 가운데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직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실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실업률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 실업률 통계수치가 정확한 고용동향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까닭에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업률보다 고용률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청년층 니트임

○ 청년층 고용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의욕의 상실로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직업훈련에도 관심이 없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로 정의할 수 있음

- 니트의 증가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 개인의 삶을 곤란하게 하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야기

- 특히 청년층 니트가 고착화될 경우 청년기 이후의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 및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니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청년층 니트는 결혼을 미루는 한편 사회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이들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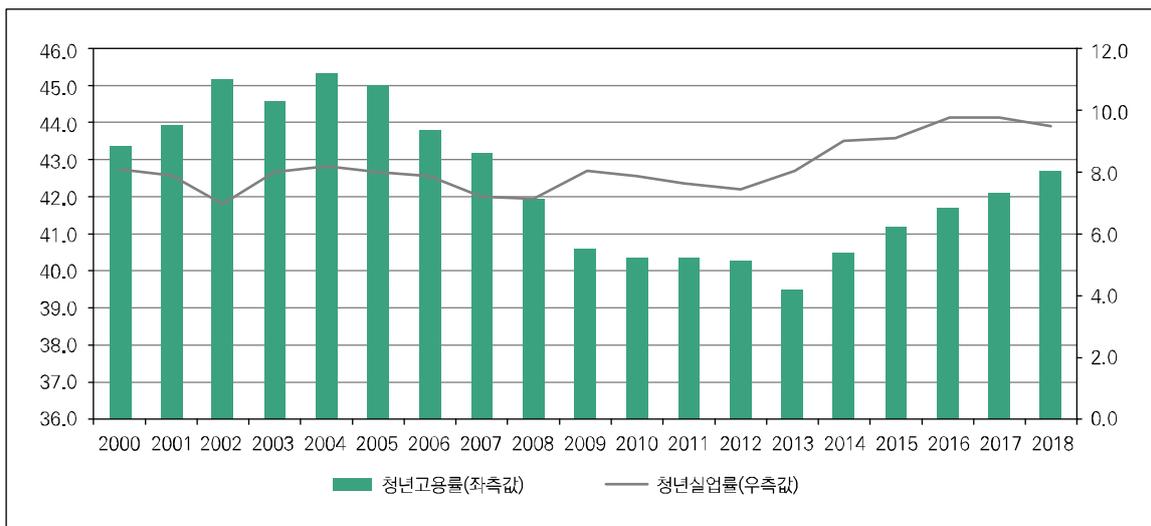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데 니트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에서 대졸이상의 비율이 높은 고학력 국가로서 니트 비중의 증가는 과잉학력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동시장에서 사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대두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니트 비중의 추이 및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노동패널의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니트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청년층의 특징에 따른 니트의 비중을 분석하는 한편, 니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자 함

〈그림 1〉 우리나라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 추이(2000~2018)



자료: 통계청

○ 니트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갖는 개념상의 한계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대변하는 고용지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트의 비중 추정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청년 고용률의 경우 재학생 등 현실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청년층까지 미취업자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동향을 대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니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II. 문헌 연구 소개 및 연구의 차별성

□ 니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니트의 정의에 관한 연구, 니트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니트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니트 인구를 추정하는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 연구로는 남재량(2006), 이규용 외(2015), 김종욱(2017) 등이 있음

- 남재량(2006)은 15~34세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 인구를 추정

*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 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기혼자 등을 제외한 사람 등이 니트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

- 이규용 외(2015)는 15~29세를 대상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를 추정

* 이규용 외(2015)에서는 취업자, 일시 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 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등을 제외한 사람을 니트에 속하는 집단으로 정의

- 김종욱(2017)은 15~29세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를 추정

* 학생이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며,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사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니트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

○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니트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최근의 보고서로는 김기현(2017)이 있음

- 김기현(2017)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15~29세 가운데 취업자도, 재학생도 아니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지 않은 경우를 니트로 정의함

- 니트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이 청년 니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다양한 니트의 결정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김기현(2017)은 성별, 연령, 지역, 혼인, 부모교육, 부모직업, 가구소득, 부모동거여부, 취업경험, 정부지원,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교육수준, 대학유형, 편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니트의 결정요인을 도출함
-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증가율은 감소), 기혼인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경우 니트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니트가 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나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박미희(2017)은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uxemburg Income Study)를 이용하여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이 청년의 니트 확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고용비중의 하락은 청년의 니트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노동시장, 복지제도는 직접적으로 청년 니트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조업 감소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을 등에 대한 문제 해결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니트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가장 최근의 니트 비중을 성별, 학력별로 추정하고 니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

-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최근의 니트 비중 및 추이를 검토

- 니트의 비중을 개인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니트의 문제점을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니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 니트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충격을 주는지를 계량화하기 위해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

- 기존 연구에서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연구가 있으나(김유선, 2017) 니트의 취업 시 임금을 청년 취업자의 평균임금 혹은 청년 취업자 평균임금의 2/3으로 가정하여 니트의 인구수로 곱한 금액을 니트의 경제적 비용으로 추정

- 본 연구에서는 청년취업자의 평균임금, 혹은 평균임금의 2/3와 같이 일률적인 가정을 통해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지 않고 니트에 속한 청년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추산하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자 함

-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니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니트의 감소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함

III. 최근 2010~2017년간 니트의 추이 분석

□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

○ 기존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조사보다는 니트의 규모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특히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보다 니트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니트의 시계열 추이를 통해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분석에서는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하여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한국노동패널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고 자 함

○ 대상연도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선정한 관계로 2010~2017년을 분석년도로 선정하였음

- 니트 비중의 변화, 니트의 특성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최근 니트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함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사년도에 따라 설문문항이 조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전국가구 표본의 이용가능 연도와 통합표본의 종단면 가중치 이용가능 연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포함, 2010~2017년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니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를 따름

○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청년층에서의 니트의 비중이므로 15~29세의 연령대 가운데 취업자도 아니고, 재학생도 아니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통학 중이지 않는 경우로 정의

- 한국노동패널의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취업자라고 응답한 자, 지난 주 주요활동을 정규교육기관 통학이라고 응답한 자, 입시학원 통학,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이라고 응답한 자, 기관통학이라고 응답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니트에 해당

○ 한국노동패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니트를 정의하고 전체 청년 인구에서 니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성별, 학력별로 분석

□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샘플링 방법, 표본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니트의 비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OECD 주요국과의 니트 비중을 비교한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추정된 니트의 비중을 OECD 주요국의 니트 비중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니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니트 비중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니트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OECD 주요 국가 청년(15~29) 니트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OECD
2008	18.5	11.4	14.6	11.6	8.7	19.2	13.7
2009	19.0	12.2	16.9	11.6	11.0	21.2	15.4
2010	19.2	12.0	16.1	12.0	10.3	23.0	15.7
2011	18.8	11.7	15.9	11.0	9.1	23.2	15.7
2012	18.5	11.5	15.2	9.9	9.7	24.6	15.4
2013	18.1	10.8	16.0	9.7	9.4	26.1	15.6
2014	(17.8)	9.8	15.1	9.2	9.5	27.7	15.2
2015	(18.6)	-	14.4	8.6	9.1	27.4	14.6
2016	(18.9)	-	14.1	9.6	8.2	26.0	13.9

주: 한국은 2014년부터 OECD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OECD 기준으로 김기현(2017)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괄호 표시)임.

자료: 김기현(2017)에서 인용 및 편집

□ 본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청년층(15~29세) 니트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5~29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니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령기준이 증가할수록 니트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년층 기준으로는 2010년 니트의 비중은 17.1%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21.2%를 기록

- 2015년 이후부터 니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니트의 비중이 21.2%를 기록하였음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니트 비중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2% 포인트 내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화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음

* 예컨대 수치상에서 차이는 나타나지만 니트의 비중은 2011~2012년 정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 니트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모수의 추정이라는 측면에선 샘플수가 많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서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샘플수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작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니트의 특성별 분석이나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가 요구되는데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추출된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국을 아우르는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12차년도(2009년)에 1,415개의 가구 표본을 추가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보완됨(다만 종단면 가중치는 2010년 자료부터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가구와 종단면 가중치가 모두 이용가능한 2010년 자료부터 최근의 자료까지 분석을 한 것임)

* 실제로 2017년 기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5세 이상 인구수는 44,637,628명이었으며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추계한 인구수는 44,695,158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령별 니트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15~29세
2010	5.2	24.3	22.6	17.1
2011	5.6	23.4	24.7	17.8
2012	6.5	23.6	22.7	17.6
2013	3.4	26.9	22.3	17.6
2014	3.8	22.7	21.9	16.2
2015	4.7	28.3	25.6	19.6
2016	4.0	26.1	30.0	20.4
2017	5.1	26.1	30.4	21.2

〈표 3〉 성별 청년층 니트 변화 추이(15~29세)

(단위: %)

연도	남성	여성	전체
2010	17.1	17.1	17.1
2011	17.5	18.2	17.8
2012	18.8	16.1	17.6
2013	18.7	16.4	17.6
2014	15.7	16.8	16.2
2015	20.0	19.1	19.6
2016	22.5	18.1	20.4
2017	24.4	17.6	21.2

○ 성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니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0년과 2017년에 니트 비중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2010년 니트의 비중이 17.1%였으나 2017년에는 24.4%로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부터 남성의 니트 비중(20.0%)이 여성의 니트 비중(19.1%)보다 크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니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0~2014년에는 어느 한쪽이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일관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2015년 이후에 남성의 니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인식 등 처음부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이 늦어지면서 니트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 학력별 청년층 니트의 변화 비중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청년층 니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0~2017년 동안 일정한 방향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청년층 니트의 비중은 최근에 30%를 넘어서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전체적으로 증줄, 혹은 고졸보다도 전문대졸,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청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 학력별 청년층 니트 변화 추이(15~29세) - 전체

(단위: %)

연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이상
2010	3.6	22.8	20.8	21.7
2011	4.2	22.1	18.7	28.0
2012	3.2	22.0	17.0	28.0
2013	2.9	20.7	24.7	28.0
2014	1.6	18.4	24.3	25.7
2015	3.1	21.8	35.0	28.2
2016	3.2	20.2	33.8	35.4
2017	3.3	23.8	26.7	32.7

〈표 5〉 청년층 니트 내에서 학력별 비중 변화 추이(15~29세)

(단위: %)

연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이상
2010	5.8	59.3	15.4	19.6
2011	6.3	56.1	12.8	24.8
2012	4.7	57.4	11.3	26.6
2013	4.5	52.5	15.7	27.3
2014	2.5	52.3	16.5	28.8
2015	4.0	52.4	17.7	26.0
2016	3.6	47.7	18.9	29.8
2017	3.5	52.7	13.9	29.9

*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니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청년층 인구에서 고졸의 인구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청년 니트층 내에서의 학력비중을 살펴보면 고졸 학력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4년제) 이상, 전문대졸, 중졸 이하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별 니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기준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22.9%를 기록하였으나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18.6%를 기록하여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으면 니트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어머니의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2017년에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23%에 달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이 경우에는 니트의 비중이 16.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청년층의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취업의욕 등 개별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니트의 비중이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표 6〉 부모학력별 니트 변화 추이(15~29세)

(단위: %)

연도	아버지 - 고졸 이하	아버지 - 초대졸 이상	어머니 - 고졸 이하	어머니 - 초대졸 이상
2010	18.0	13.7	18.1	9.6
2011	18.4	14.8	18.6	12.0
2012	18.4	15.8	19.0	10.8
2013	19.3	15.1	18.7	13.4
2014	19.2	11.3	18.1	9.8
2015	22.0	15.8	20.9	14.9
2016	25.5	12.5	24.0	9.9
2017	22.9	18.6	23.0	16.5

〈표 7〉 가구소득계층별 니트 변화 추이(15~29세)

(단위: %)

연도	소득 하위층	소득 중위층	소득 상위층
2010	23.3	17.7	14.0
2011	29.0	18.8	12.6
2012	26.6	19.2	10.8
2013	23.6	18.9	13.1
2014	26.5	17.8	10.9
2015	33.0	20.4	14.9
2016	37.2	21.5	13.9
2017	37.7	21.0	16.5

○ 가구 소득계층별로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각 소득계층별에서 2015년부터 니트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2017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층(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경우 니트 비중이 37.7%를 기록하였으며, 소득 중위층(가구 중위소득 50~150%)의 경우 니트 비중이 21.0%, 소득 상위층(가구 중위소득의 150% 초과)의 경우 니트의 비중이 16.5%를 기록하여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청년층의 취업준비 여력 증대,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가 등으로 청년층에서의 니트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
 - * 저소득층에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청년층에 대한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청년층에서는 현재 삶에 대한 불안감, 포기 등으로 니트에 내몰릴 가능성이 증가

○ 추가적으로 부모의 직업형태에 따른 니트의 비중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추이는 발견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설문항목이 14세 당시 부모의 일자리 형태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청년 부모의 지속적인 일자리 형태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 2010년에는 부모의 직업이 무직/가족근로종사자의 경우에 오히려 니트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직업에 따른 니트 비중의 특성을 명확히 단정 짓기는 어려움
- 다만 최근인 2015년 이후부터는 부모의 직업이 무직/가족근로종사자의 경우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등의 경우보다 니트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8〉 14세 당시 부모 직업별 니트 변화 추이(15~29세)

(단위: %)

연도	무직/가족근로종사자	자영업	비정규직	정규직
2010	6.5	19.4	16.1	16.5
2011	18.7	19.2	14.9	16.9
2012	17.3	20.7	15.7	15.5
2013	16.5	19.6	12.4	16.8
2014	19.2	17.8	13.4	15.3
2015	27.5	22.1	13.3	18.8
2016	30.1	22.5	23.8	16.6
2017	26.2	22.8	18.2	20.2

〈표 9〉 취업 및 직업훈련 경험여부별 니트 변화 추이(15~29세)

(단위: %)

연도	취업경험 무	취업경험 유	직업훈련경험 무	직업훈련경험 유
2010	19.5	13.7	17.4	15.6
2011	21.3	13.0	18.1	16.1
2012	20.7	12.7	17.8	15.5
2013	19.8	13.8	17.7	17.1
2014	18.8	11.9	16.1	17.7
2015	21.8	15.8	19.5	20.8
2016	23.0	16.2	20.7	18.0
2017	25.4	14.2	21.5	17.4

- 부모의 직업이 자영업, 비정규직, 정규직 등의 경우 특별히 니트 비중의 고저를 명시할 만한 추이를 나타내지는 않음
- 청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로 니트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의 경우 2017년 니트의 비중은 25.4%를 기록한 반면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청년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14.2%를 기록하여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서 니트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훈련 유무에 따른 니트 비중에서는 일관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많은 경우에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IV.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 최근에 니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니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다 계량화하는 방안을 모색
- 기존에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주로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임금만을 사용하여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
 - 니트는 일할 나이의 청년층의 기술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킴
 - 니트의 비용은 니트가 취업했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총 근로소득으로 정의되며 이때 총 근로소득은 사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산(OECD(2016))
- 기존의 연구에서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시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임금을 상정하거나 평균임

금의 2/3을 사용하였음

- 니트가 취업 시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소득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분하여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임금의 경우 니트가 취업시 받을 수 있는 상한 소득액을 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임금 2/3는 니트의 경우 실제 취업자보다 낮은 교육수준 및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받을 것이라는 하한 소득액을 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상한액이라든가 하한액의 설정은 추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한액 및 하한액 가정에 근거한 수치로서 가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추정치가 범위값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니트의 실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음

- 니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해크만의 선택적 편익 수정모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크만 모형 사용시 추정을 위한 적절한 변수(도구변수)의 선택이라든가 예상 소득의 추정시 음수값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

-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취업자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상한과 하한을 가정하는 문제, 범위에 기반을 둔 추정이라는 지적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성향매칭분석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니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니트의 예상 소득수준을 추정

○ 취업 여부와 같은 결과는 무작위(random)로 발생하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 및 성향이나 유인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결정짓는 성향점수를 산정한 후 성향점수를 매칭하여 미취업자의 취업 시 실제소득액을 추정하고자 함

○ 성향점수매칭법의 경우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반사실적 성과(counterfactual outcome)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

○ 요컨대 성향점수매칭법은 취업에 성공할 예상 확률에 근거한 통계적 추정치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사용하여 동일한 점수의 관측치를 가진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매칭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 성향점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별적 특성이 주어질 때 취업을 하게 될 확률을 의미

- X 를 관측치들의 개별적 특성 변수들이라고 할 때 성향점수는 X 의 함수로써 정의되는데 보통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begin{aligned} \text{Propensity Score} &= P(X) = \Pr(T=1|X) \\ &= \Pr(T_i = 1) = \Phi(h(X_i)) \end{aligned}$$

- 다시 말하면 성향점수매칭법은 로짓 혹은 프로빗 확률에 기반하여 추정한 확률값을 점수화하고 유사한 점수를 갖는 관측치를 매칭하여 결과치를 추정하는 방법임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업여부 변수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를 설정하여 취업 요인변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종속변수인 취업자 여부 변수는 노동패널에서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취업자인 경우는 0의 값을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역, 직업훈련 경험 유무, 소속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 수, 가구주 여부 등을 고려하였음

- 개인의 성별은 취업시장에서의 취업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취업에 대한 선호도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음(남성의 경우에는 1의 값을 여자의 경우에는 2의 값을 가짐)

- 청년층의 나이의 경우 경험수준을 대변하거나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취

- 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만 나이를 변수로 선정하여 포함시켰음
-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스킬을 나타내기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시켰음(범주 변수로 구분하여 중졸이하는 0의 값을, 고졸은 1의 값을, 전문대졸은 2의 값을,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은 3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
 - 개인의 혼인여부도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시켰음(혼인 여부 변수는 미혼의 경우 0의 값을, 혼인을 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도록 구성)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취업기회나 취업관련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서울에 거주하면 1의 값을, 그 외의 지역은 0의 값을 가지도록 구성)
 - 과거에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을 수 있으며 스킬의 향상으로 취업기회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과거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과거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면 0의 값을,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의 취업준비 및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수준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음(가구의 소득수준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0, 1, 2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구성)
 - 청년이 속한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적 배경이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도 변수로 구성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가구원 수를 변수화하여 사용)
 - 청년이 해당 가구의 가구주일 경우에도 취업에 대한 의지, 일에 대한 욕구 등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및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해당 가구의 가구주 여부를 변수화하여 모형에 포함하였음(가구주의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변수값을 생성)

〈표 10〉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항목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취업여부(미취업=1)	18,877	0.686	0.464	0.0	1.0
성별(남성=1, 여성=2)	18,877	1.498	0.500	1.0	2.0
나이	18,877	21.899	4.479	15.0	29.0
교육수준(중졸 이하 기준)					
고졸(=1)	18,872	0.417	0.493	0.0	1.0
전문대졸(=1)	18,872	0.126	0.332	0.0	1.0
대졸이상(=1)	18,872	0.154	0.361	0.0	1.0
혼인여부(혼인=1)	18,877	0.080	0.271	0.0	1.0
거주지역(서울=1)	18,877	0.178	0.383	0.0	1.0
직업훈련경험(유경험=1)	18,870	0.104	0.306	0.0	1.0
가구소득계층(0~2)	18,877	1.197	0.593	0.0	2.0
가구원수	18,877	3.693	1.176	1.0	10.0
가구주(가구주=1)	18,877	0.101	0.301	0.0	1.0

주: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 통계량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2010~2017 청년층(15~29)

〈표 11〉 성향점수 도출을 위한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취업여부	계수값	표준오차	z-stat	p-value
성별(남성=1, 여성=2)	-0.197***	0.071	-2.750	0.006
나이	-0.121***	0.014	-8.370	0.000
교육수준(중졸 이하 기준)				
고졸(=1)	-0.856***	0.164	-5.230	0.000
전문대졸(=1)	-1.684***	0.193	-8.740	0.000
대졸이상(=1)	-1.121***	0.195	-5.740	0.000
혼인여부(혼인=1)	0.472***	0.134	3.530	0.000
거주지역(서울=1)	0.001	0.090	0.010	0.990
직업훈련경험(유경험=1)	-0.686***	0.114	-6.010	0.000
가구소득계층(0~2)	-0.155***	0.059	-2.640	0.008
가구원수	0.053	0.039	1.360	0.174
가구주(가구주=1)	-1.003***	0.148	-6.760	0.000
상수	4.663	0.385	12.100	0.000

주 1): 2017년 자료 분석결과 예시
 2): *** p<0.01, ** p<0.05, * p<0.1

- 성향점수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아래와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고 프로빗(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¹⁾

$$\begin{aligned}
 job_i = & \alpha + \beta_1 gender_i + \beta_2 age_i + \beta_3 edu_i \\
 & + \beta_4 marriage_i + \beta_5 region_i + \beta_6 training_i \\
 & + \beta_7 household_income_i \\
 & + \beta_8 household_number_i \\
 & + \beta_9 household_head_i + \epsilon_i \quad \dots \textcircled{1}
 \end{aligned}$$

-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만 가지는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성향점수를 구하기 위한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변수들이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만 거주지, 가구원 수 등은 취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의 성향점수를 계산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매칭하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

-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변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에 대한 성향점수를 계산
 - 개인의 특성, 가구적 특성, 교육수준, 직업훈련 경험 유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취업의 성향점수를 계산

- 개인별 성향점수를 계산하고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쌍을 매칭

- 현재는 미취업 상태이지만 향후 취업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득으로는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가지는 매칭된, 실제 취업자의 소득을 사용

- 현재는 니트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들이 취업을 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성향점수매칭법에 근거한 소득수준으로 추정하여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
 - OECD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총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개인소득에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1) 부모님의 교육수준을 포함하여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교육수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샘플은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모수를 추정하는 본 연구의 경우 모든 샘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교육수준 변수는 추정모형에서 제외하였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에서 추정된 일 년 동안의 연소득에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여 경제적 비용으로 정의

- 2017년 우리나라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비율은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을 고려하였으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

* 2010~2017년도까지 각 연도별 4대 보험 요율을 사용하여 전체 니트의 예상소득에 4대 보험 부담금을 합산하여 니트의 총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음

* 예컨대 2017년 사용자는 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4.50%,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3.26%, 고용보험(150명 미만 사업자 기준)으로 0.90%, 산재보험(평균 산재보험율)으로 1.70%를 부담하며 4대 보험 부담률을 모두 합한 근로자 소득의 10.36%를 사회보장부담금으로 납부함²⁾

* 따라서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니트의 예상 소득에 예상 소득 대비 10.36%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과정을 2010~2017년까지 반복수행하여 각 연도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니트의 월평균 소득³⁾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월평균 소득은 실제 취업자의 79~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0년도에 청년층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78.2만원이었으나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154.0만원을 기록하여 니트의 취업자 대비 소득비율은 86.4%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이후 취업자 대비 니트의 소득비율은 부침을 나타내었으나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85.0%를 기록하였음

- 2017년 실제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210.0만원을 기록하였는데 니트의 예상 월평균 소득은 약 178.4만원을 기록하여 니트의 취업자 대비 월평균 소득은 85.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취업자 대비 니트의 월평균 소득 추정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특성치를 가진 청년들이 니트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적 비용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표 12〉 실제 취업자와 니트의 월평균 소득 비교(15~29세)

연도	실제 취업자(만 원)	니트의 추정치(만 원)	취업자 대비 니트의 소득비율(%)
2010	178.19	153.96	86.40
2011	182.34	156.83	86.01
2012	183.24	144.87	79.06
2013	197.76	161.09	81.46
2014	197.56	175.02	88.59
2015	198.65	163.28	82.20
2016	197.37	169.95	86.11
2017	209.95	178.42	84.98

2)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상한선이 있지만 청년층의 경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율인 4.50%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정함.

3)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별 월평균 소득(임금근로자)을 사용하여 세전소득을 계산한 후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니트의 세전소득을 추정한 값임. 한국노동패널에서 개인별 월평균 소득은 세금공제 후의 소득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공제하는 세금은 다른 항목으로 따로 조사하고 있지만 공제하는 세금에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세금공제 후의 소득과 공제되는 세금을 합하여 개인별 월평균 소득을 도출하더라도 공적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를 제외한 금액만이 이용 가능함. 하지만 공적보험료의 산술식을 이용하면 이로부터 개인별 공적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공적보험료를 계산한 후 이를 세금공제 후의 소득과 공제되는 세금항목과 합산하여 개인의 세전소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니트의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였음.

〈표 13〉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 추정

연도	니트 전체의 월소득 추정치(억 원)	사용자 사회보장부담금 요율(4대 보험, %)	연간 단위 니트의 경제적 비용(억 원)	GDP (명목, 연단위, 십억 원)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
2010	26,313.90	9.84	346,836.80	1,322,611.20	2.62
2011	28,697.68	10.02	378,894.41	1,388,937.20	2.73
2012	25,801.50	10.16	341,075.02	1,440,111.40	2.37
2013	28,523.42	10.14	376,981.12	1,500,819.10	2.51
2014	28,412.07	10.29	376,032.06	1,562,928.90	2.41
2015	30,591.78	10.33	405,036.87	1,658,020.40	2.44
2016	34,640.60	10.36	458,754.23	1,740,779.60	2.64
2017	37,319.72	10.36	494,234.43	1,835,698.20	2.69

-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7년 기준 GDP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0년도에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34.7조원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49.4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에 2.62%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2017년에는 2.69%를 기록
 -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그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2015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최근 니트의 경제적 비용 증가는 니트의 예상 소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이후 니트 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니트의 경제적 비용 증가는 니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암묵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 니트의 변화추이를 특성별로 분석하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음
 - 니트는 취업자도 아니고, 재학생도 아니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써 사회에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유발
 - 한국노동패널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니트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 니트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0년 17.1%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21.2%를 기록하였음
 - 니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며 그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니트의 비중은 성별, 학력별, 부모의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 취업/직업훈련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니트의 비중에서는 최근 들어 남성에서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에서의 니트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 최근 들어 2015년부터 남성의 니트 비중(20.0%)이 여성의 니트 비중(19.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들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니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 청년층 니트의 변화 비중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청년층 니트의 비중은 최근에 30%를 넘어서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부모의 학력별 니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기준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22.9%를 기록하였으나 아버지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18.6%를 기록하여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으면 니트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가구 소득계층별로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직업형태에 따른 니트의 비중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추이는 발견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로 니트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훈련 유무에 따른 니트 비중에서는 일관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많은 경우에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GDP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 결과 2017

년 기준 178.4만원을 기록하여 니트의 취업자 대비 소득비율은 85.0%를 기록하였음

-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 34.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49.4조원으로 증가

-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에 2.62%를 기록한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69%를 기록

- 최근 들어 니트의 비중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재편하고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등 서비스 중심의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갈 필요

- 가구소득별 니트의 비중을 살펴보면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주로 소득 하위층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급하고 있어 정말로 지원이 절실한 소득하위계층으로 정책을 집중할 필요

- 소득하위층에 대한 이전소득이 오히려 청년의 취업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증분석결과 소득하위층에서의 이전소득이 니트의 결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이전소득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

〈표 14〉 소득하위층에서 이전소득이 니트에 미치는 영향

니트여부	계수값	표준오차	z-stat	p-value
이전소득	0.000	0.000	-1.280	0.202
상수	-0.408	0.109	-3.740	0.000

주 1): 2017년 자료 분석결과 예시
 2): *** p<0.01, ** p<0.05, * p<0.1

○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근에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니트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위주의 지원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 청년층 니트에게 직업훈련이나 인턴 등 취업경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구직단념자의 취업 의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현금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취업을 돕고자 한다면 취업경험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현금지원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 검토

○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청년의 경우 니트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졸취업을 활성화하여 과잉 대학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어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과잉 대학진학에 대한 우려를 낳았는데, 과잉 대학진학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눈높이가 높아져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니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증대
- 고졸 후 취업을 사회적으로 정착시켜 과잉 대학진학을 자제하고 궁극적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니트 비중을 줄여나가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

○ 청년층이 초기에 니트로 전락하여 고착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의 확대가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고할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장진입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고립,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의욕 상실 등에 기인하는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신희경 외(2014))

- 니트의 문제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야기된 부분이 있다는 인식 하에 니트가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층의 사회화를 위한 공간 필요
- 취업 정보 및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취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집단의 심리상담적 지원 공간까지 지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 서울시의 경우 무중력지대라는 청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 커뮤니티 위주의 공간기반 활동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프로그램에 따라 진로탐색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취업 및 교육훈련 지원이 공간활동의 주를 이루는 부분은 아니며 필요한 정보는 게시판 등 통해 제공하는 정도
- *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재사회화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문헌〉

- 김기현,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7년 제8호, 2017.
- 김기현, “청년층 고용현황 분석”, KLI패널 워킹페이퍼, 2015년 제3호, 2015.
- 김유선,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KLSI Issue Paper, 2017년 4월호, 2017.
- 김종욱,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2017년 제10호, 2017.
- 남재량,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6.
- 노민선, “청년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공개 연구보고서(매일경제신문 보도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18.
- 박미희,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노동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2017.
- 박성익, 조장식, “표본선택 편의를 반영한 임금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5호, 2016.
- 신희경 외, “청년 니트(NEET)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2014.
- 이규용 외,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조장식,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대졸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8권, 제5호, 2017.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6.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9년 9월 23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